

01 교회소식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기도해 온 이스라엘 선교는 2007년 7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져 계속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것은 첫 사람 아담과 후손인 모든 사람이 상대성을 체험하고 참 행복을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03 간증

우리 삶에 넘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 은혜로 질병을 치료받고 축복받으며 사고에서 보호받는 등 성령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본다.

04 권능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는 신속합니다!”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다운중후군 고위험군의 태아가 정상이 된 이민경 집사와 죽은 직전에서 소생한 케냐 메리 무웨니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791호 2017년 6월 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크리스탈포럼 주최 '2017 이스라엘 찬양 페스티벌'

### 전 세계에 동시 위성 생방송 진행, 우리 교회 예능팀 극찬받아



주님의 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땅, 이스라엘 키부츠 쉬파임 대강당에서 지난 5월 20일(토) 오후 6시(현지시간), 크리스탈포럼 주최 '2017 이스라엘 찬양 페스티벌'이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이스라엘 전역의 메시아니즘(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을 비롯 한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필리핀, 아프리카, 라트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참석하였다.

다니엘 마짜쉬 목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하이파 영광의왕교회팀, 우리 교회 공연팀, 나사렛 생영교회팀, 우크라이나 승리의 소리팀, 아프리카계 찬양팀(사진 1~5),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교회의 솔리스트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다.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부위원장 한주경 찬양선교사와 글로리워십팀은 총 30여 분간 페스티벌의 앞부분과 대미를 장식하며 극찬을 받았다. 장고와 부채를 이용한 한국전통무용, 이스라엘 전통곡에 맞춘 웅만한 워십 등 글로리워십팀의 다채로운 공연과 한주경 찬양선교사의 히브리어-러시아어 찬양, 회중찬양을 통해 많은 영혼이 새 힘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한주경 찬양선교사는 만민찬양 '목자의 성'을 이스라엘의 유명 복음성가 가수인 드미트리 페트롭스키 목사와 함께 러시아어로 찬양하여 감동을 더했다(사진 6).

GCN방송 국장 김진홍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사랑을 전했으며, 이원생방송으로 진행된 간증토크쇼에는 한주경 찬양선교사가 출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현지 위성업체와 협력하여 GCN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 위성 생방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사진 7~9).

170여 개국에 TBN러시아, CNL TV, TBN발티아, CMTN 방송과 인빅토리,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 및 녹화방송을 하여 많은 성도가 함께하였다. 생방송을 통해 페스티벌에 동참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몰도바, 영국, 스위스,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많은 나라에서 은혜와 감동이 넘쳤다는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은 2007년부터 3년간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며 집회를 인도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선교 사역에 영적인 힘을 받은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개최를 시작으로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행 19:11~12), 청소년 캠프, 부부 세미나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스라엘 개신교 부흥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찬양 페스티벌'은 매년 5월에 개최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았으며, 2012년부터는 우리 교회 공연팀이 초청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니즘들이 공공장소에서 이 같은 대규모 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메시아니즘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스라엘 목회자들은 더욱 하나 되어 왔다(사진 10~11).



당회장 이재록 목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5~17)

#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이나 색깔, 맛이 좋았습니다.

생령으로 창조된 첫 사람 아담은 에덴동산에 살면서 과일들을 원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나무의 열매만은 예외였지요.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창 2:16~17) 하시며 엄히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 중앙 지역을 구분하여 출입을 제한하시고, 천사와 달리 짐승 형상을 지닌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생령 아담은 오랜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창 3장).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간 경작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생령 아담이 범죄하게 하셨느냐?”고 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의로 선악과를 두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여 ‘선악과로 아담을 시험하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덴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령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평온하며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성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행복을 느낄 수 없었지요. 에덴동산에는 질병이나 사고, 죽음이 없으니 아픔이나 고통, 슬픔을 겪어보지 않았기에 불행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된 가치를 깨달으려면 상반되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굶주림으로 고생한 사람이 식량의 소중함을 알듯이, 상대성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난이

없으면 부요함에 감사할 줄 모르고 미움이 없으면 사랑이 좋은 줄도 모르지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지구로 쫓겨난 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도 저주받아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창 3:17), 육의 세상인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추위와 더위를 겪고 배고픔과 피곤함, 아픔을 느꼈으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답답함과 불안감도 느꼈지요.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참담한 일도 겪었습니다(창세기 4장).

비로소 아담은 에덴동산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육의 세상에서 불행을 겪은 후야야 모든 것에 진정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것이지요. 이처럼 선악과로 인해 범죄한 아담의 후손 곧 모든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상대성을 체험하며 ‘참’을 깨닫는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 경작을 통해 무엇이 참 행복이며 참 사랑인지 깨달아 장차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게 된 것입니다.

## 2. 인간 경작을 허락하신 사랑

부모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자녀가 힘들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해도 학교에 보내고 할 수만 있다면 공부를 더 많이 시키려 합니다. 반면 자녀는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 힘들고 고달프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이 시간들을 인내하여 성공한 자녀라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과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허락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아픔과 슬픔, 시련과 고통을 당할 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은 때문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 경작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

정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과 진리로 이기고 승리했을 때는 반드시 영광스런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후 그냥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인간 경작에 동참하셨습니다. 인생들만 눈물, 슬픔 가운데 경작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때론 고통도 받으셨지요. 오히려 인생들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죄인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셔야 했으며,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희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죽임당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셔야 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사랑으로 참으시며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슬픔을 지금도 이겨내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계획하실 때 이미 이렇게 될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힘과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위해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사 58:9 ; 요 14:13~14 ; 롬 8:2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와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1.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셋째 날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 곧 생명수를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물을 땅이라 칭하셨지요. 그리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 각종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에덴동산에도 각종 식물이 창조되었지요(창 1:9~13).

천지창조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생령으로 창조하신 후 에덴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동산 중앙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창 2:9). 에덴동산의 과일은 지구의 과일과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아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일아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아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아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전립선 비대증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멜초 레이에스 성도 (74세, 필리핀 마닐라만민교회)

2007년, 저는 하룻밤에도 7~8번은 일어나 소변을 보러 가는 데다 통증이 심해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겁이 났습니다. 2008년에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2016년 후반기부터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지요. 병원에서는 전립선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에 한 번은 전립선 특이항원(PSA)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2016년 8월에 검사를 받으니 정상수치는 3~4(ng/mL) 미만이어야 하는데 6(ng/mL)이 나왔고, 12월에는 20(ng/mL)으로 올랐습니다. PSA 수치가 20까지 올라가면 전립선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저는 염려를 많이 했지요.



2017년 3월 19일, 세 번째 검사를 받으러 가기 하루 전날, 저는 담임 엄재봉 목사님에게 제 몸의 상태를 말씀드린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간절히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변을 보는데 전과 달리 통증이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병원 검사 결과, PSA 수치가 2로 정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 “수상에 승진까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현 집사 (43세, 창원만민교회)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종합병원에 입사한 저는 평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어디에 있든지 선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것을 가르쳐 주셨기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직장에서도 후배나 동료를 배려하며 환자들에게는 내 가족이 다친 것처럼 세심하게 살피고자 했고, 보호자분들에게도 편안하고 친절하게 대하고자 마음을 썼지요. 제가 담당하는 병실의 환자들 상태가 좋아지자 입실 희망자가 늘어나 주위의 귀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30일에는 연말 유공직원에게 포상하는 이사장상을 받았고, 2017년 1월 6일자로 간호직 5급에서 4급 과장으로 승진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준공무원 대우를 받는 병원이라 간호사 이직율이 낮은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승진이 적절되어 있었고, 병원 경영상 승진자도 극소수로 뽑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예배를 서울에 올라가서 드리고 믿음으로 당회장님과 악수한 후 이 축복된 소식을 들으니 더욱 기뻐졌지요.

이처럼 포상과 승진은 너무 감사했지만, 저는 한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담당하는 병실 제도가 바뀌면서 올해 2월 1일자로 3교대 근무 발령이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의지하니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1월 23일자로 3교대를 하지 않는 상근 근무지에 발령이 나는 축복까지 받을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 “차량 사고에서 저를 지켜주는 힘센 천사를 보았어요!”



양선덕 집사 (52세, 2대대 12교구)

지난 5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경의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느라 2차선 차길 옆의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주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저를 향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손을 들어 제 앞까지 온 트럭을 두드리며 “아저씨!” 하고 소리쳤지만 운전자는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결국 저는 차에 부딪혀 바다에 나뒹굴어 졌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참으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트럭 높이보다 조금 더 키가 큰 힘센 천사가 두 팔을 앞으로 뻗어 트럭을 막고 서 있는 것이었지요. 천사의 뒷모습은 날개가 오므려져 있었고, 순식간에 천사는 투명한 막으로 저를 덮어 씌워주었는데 보호막 같

이 느껴졌습니다. 마침 순찰차에 발견되어 조금 후 저는 119로 병원에 갔지만, 아무런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도 후유증 없이 무탈합니다.

그동안 성도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지만, 직접 영의 세계를 보고 체험하니 더욱 믿음이 되었지요. 천사를 통해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천사**는 사람의 형상과 비슷하지만 날개가 있고, 살과 뼈가 없는 순수한 영적 존재이다(시 148:2, 5 ; 골 1:16).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영의 세계에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돕게 하셨다.

천사의 사역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시종드는 일 외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진행과 완성을 이루기 위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며 돕는 것이

다. 수많은 천사의 머리인 천사장들은 하나님 곁에서 손과 발, 눈과 귀가 되어 모든 분야를 두루 살피고 중요한 사항들을 보고드리며 하나님께 직접 지시를 받는다(단 9:21~23, 10:13~14, 21 ; 눅 1:19, 26~27 ; 유 1:9 ; 계 12:7~8).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수종드는 천사(마 4:11)가 하나 이상 딸려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천사도 있으며(히 1:14),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도 있다(마 18:10).

이 외에도 힘을 사용하는 천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향을 받아가는 천사(계 8:3~5), 임박한 심판을 알리기도 하며(창 19:13) 범죄에 대한 보응으로 재앙을 내리는 천사도 있다(삼하 24:16 ; 행 12:23).



###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선 9~13
- 육체의 결여 10
- 순전 1~2
- 일곱교회 19~25
- 헛되고 헛되니 1~3
-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2~8
- 마음발을 개간하자 2~6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4~5

### GCN TV설교

-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1(이수진 목사)
- 내 영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이미영 목사)
- 공력(이희선 목사)
- 읊기 강해 30(신동초 목사)
- 시내산 언약(정구영 목사)
- 축복의 토대(천우진 전도사)

###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다시해보기 20)
- 관능 스페셜 19
- 창조와 과학 16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76
- 내 마음의 찬양 26
- 모두 드려요 47
- 마지막 때 4
- English 14

###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1
- 필리핀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0

June 6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7.6.4~6.10

#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에 있던 우리 아기, 정상이 되었어요!”

이민경 집사 (31세, 1대대 1교구)

저는 7년 전, 자궁과 난소에 여러 개의 혹이 있었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2017년 1월 결혼한 후, 자궁과 난소로 인한 가족력이 있는 데다가 자궁에 혹이 있었던 사람은 임신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2월 말쯤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갔을 때, 저는 담당의사에게 7년 전에 5.9 cm의 자궁근종과 그 옆에 2~3개의 혹, 난소에 3 cm의 혹이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였습니다.

의사는 “자궁근종은 4 cm만 되어도 큰 편에 속하며, 이로 인해 임신도 쉽지 않고 근종이 커지지 않았더라도 그냥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며 “없어졌더라도 흔적이 있을 테니 일단 검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의사는 “자궁과 난소 그 어디에서도 혹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깨끗하다.”며 “정말 혹이 있었던 것이 맞느냐?”고 오히려 되물었지요.

그제야 저는 흔적조차 없도록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목자의 권능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7일(금)에는 임신 11주차에 접어들어 1차 기형아 검사로 ‘목 투명대 검사’를 하였습니다. 목 투명대는 2.5~3 mm 이하여야 정상으로 판명되며, 3 mm 가 넘는 경우 다운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데 저희 아기는 4.12 mm로 정상보다 많이 두꺼운 편에 속하였습니다.

담당의사는 염색체 이상이 의심된다며 태반조직을 추출하여 염색체를 직접 배양하고 분석하는 ‘융모막 융모검사’를 하

자고 했습니다. 다운증후군을 확진하는데 확실한 검사라고 했지요. 저희 부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을 믿으니 염려하지 않았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무안단물(출 15:25)을 마시며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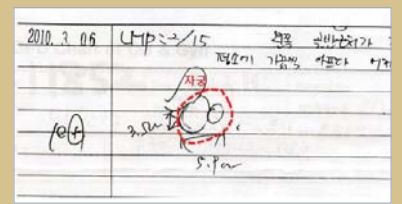
4월 9일(주일),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다운증후군 및 어떠한 이상 염색체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뜨거운 열이 느껴지면서 목자의 권능으로 아기가 정상이 되었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날 저녁 “아이는 정상이예요.”라는 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편안하게 검사 준비를 할 수 있었지요.

4월 11일(화), ‘융모막 융모검사’를 받기 전, 목 투명대 재검사 결과 태아의 목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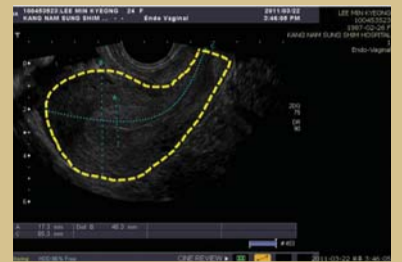
명대가 4.12 mm에서 2 mm로 단 3일 만에 정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보통 2주 후쯤에는 가끔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3일 만에 줄어드는 경우는 없었다.”며 의아해하였지요.

이러진 융모막 융모검사 결과에도 의사는 “정상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및 주요 5가지 검사결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이처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기도받기 전 : 자궁 뒤로 5.9 cm 크기의 자궁근종이 발견되고 있다.



▲ 기도받은 후 : 자궁초음파 상에서 자궁근종이 보이지 않고 있다.



▲ 기도받기 전 : 태아의 목 피부 두께가 4.12 mm로 두꺼워져 있어 다운증후군 외 유전질환이 의심됨.



▲ 기도받은 후 : 4.12 mm로 두꺼웠던 태아의 목 피부 두께가 2 mm로 줄어듬.

# “죽음 앞에서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메리 무웨니 성도 (42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2017년 2월 말부터 한 달여 간 심한 복통과 구토가 계속 되어 음식을 전혀 먹지를 못했습니다. 4월부터는 기침이 심하고 어지러웠으며, 척추까지 아파 그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앉아 있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지요.

결국 5월 11일(목), 저는 심한 위경련을 호소하며 정신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뇌수막염, 위궤양, 뇌손상, 편마비, 폐렴, 식도염 등으로 의식을 잃었던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옮겨졌고 가족으로부터 저의 위급한 소식을 들은 한진범 부목사님은 5월 14일(주일), 저를 대신하여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GCN방송을 통해 주일 대예배 시 제

사진을 준비해 그 위에 손을 얹고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믿음으로 정성껏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시간에 병원에서 제 딸들이 휴대폰에 저장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함께 받으며 의식이 없는 제게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 상상치도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후, 놀랍게도 제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주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능의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 저는 죽음의 기로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음식도 먹으며 빠르게 몸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다시 살려 주시고 제2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안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복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